



강진 최제영



곡성 김광휘



광양 김충권



담양 박종영



무안 이기성



보성 안구일



순천 김승호



순천 김종영



신안 박응식

함평군, '2017 대한민국 국향대전' 대장정 시작

내달 5일까지 17일간 공연·축제 등 다채



2017 대한민국 국향대전이 20일 개막식과 함께 17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함평군은 이날 오전 9시 함평엑스포공원 황소의 문 광장에서 안병호 군수, 이윤행 군의회의장, 남성우 축제추진위원장을 비롯한 기관사관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개막했다.

이들은 다육식물관, 분재전시관, 중앙광장, 함평군립미술관 등 행사장을 순회하며 현장을 둘러봤다.

올해 국향대전은 '국화향기 가득한 함평으로'를 주제로 다양한 기획작품과 수백여 점의 분재작품을 선보인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축제

26일 흑염소 소비촉진을 위한 전국대회가 진행된다.

28일엔 함평 특산물인 한우와 단호박의 인지도를 높이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제7회 전국 명품 한우와 단호박 요리경연대회'가 함평여자중학교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다.

11월1일엔 축제장 내 열린무대에서 국향대전 시낭송회가 개최된다.

풍성한 문화예술 행사도 볼거리다.

축제장 내 위치한 함평군립미술관에서는 국향대전 특별기획전 '황화민절-그윽한 향기에 취하다'와 군립미술관 소장품전 '축제에 부쳐'가 올해 말까지 진행된다.

이밖에도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가 마련돼 관광객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군 관계자는 "국화향기로 물든 가을의 정취를 마음껏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며 "수준 높은 국화작품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우리 군을 찾는 모든 분들에게 가을의 낭만과 추억을 가득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평=김광준 기자

장 중앙광장엔 대형 광화문과 세종대왕상이 들어서 관광객을 맞이한다.

국화꽃을 두른 평화의 소녀상은 위안부 문제를 환기하고 인권과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

축제장내 곳곳에 대형 무지개터널을 조성해 볼거리를 더욱 풍성하게 한다.

애니메이션 캐릭터와 코끼리, 기린, 사슴 등 동물모형으로 만든 아기가자기한 포토존은 아이들에게 인기가 높다.

한 줄기에서 1538 송이가 피는 천간작을 비롯해 대국, 복조작 등도 눈길을 끈다.

행사기간 동안 다양한 특별행사도 펼쳐진다.

신안군, 햇김 생산

신안군 겨울철 수산물 별미인 돌김이 작년보다 하루 빠른 19일부터 입수면해역에서 처음으로 생산되었다.

이번 햇김을 시작으로 오는 24일 입해읍 신안수협 송공 물김 위관장에서 첫 김 수매를 시작 할 예정이다.

2018년산 첫 햇김은 신안군 입자면 김 양식어장에서 생산된 조생종 품종인 잇바디돌김으로 곱창처럼 길면서 구불구불하다 하여 일명 '곱창김'이라고 부르며, 맛과 향이 만생종인 일반 돌김에 비해 뛰어나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높아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신안=박응식 기자

보성~겸백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시행

2022년까지 완료...주민 통행불편과 사고 위험성 감소 기대

보성군은 군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 건설과 낙후된 지역 발전을 위해 미려면 덕립리·화방리, 겸백면 용산리·남양리 일원에 보성~겸백간 지방도 확포장공사를 시행한다.

보성~겸백간 지방도는 선형이 불량하여 주민 통행 불편과 사고 위험성이 상존하는 구간으로 2022년까지 5개년에 걸쳐 총사업비 215억 원을 투입하여 연장 5km, 폭 10.5m 확포장공사를 추진한다.

군은 내실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18일 미려면 대실마을회관, 겸백면 대표경로당에서 토지소유자,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성~겸백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사업설명 및 보상계획 안내, 주민 의견수렴 등으로 진행됐으며,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공사 및 보상업무에 반영할 계획이다.

보성군 관계자는 "사업이 완료되면 통행불편과 사고 위험성이 감소되어 주민 생활환경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보성=안구일 기자

고흥군, 명품 '하나봉' 생산 위한 품질관리 나서

수확 전 당·산도 측정 통해 물 관리 등 후기 관리 기술지원

고흥군은 명품 '하나봉' 생산을 위한 품질관리 현장기술지원에 나선다.

고흥지역 하나봉은 재배면적 11ha(40 농가)로 연간 약 300여 톤이 생산되고 풍부한 일조량과 비옥한 토양으로 인해 높은 당도와 새콤달콤한 맛으로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높다.

고흥군농업기술센터는 당도 13

Bx이상, 산도 1.0% 이하를 하나봉 출하 기준으로 삼고, 수확 전 당·산도 측정을 통해 물 관리 등 후기 관리 기술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최고품질의 하나봉 생산은 토양과 나무에 따라 다소간 차이가 있으나 10월까지 10~15일 간격으로 10a당 5~10톤 관수하여 산도를 1.3% 이하로 저하시키고, 이후 수확기까지 관수량을 점차 줄여 당도를 높이

는 것이 관건이다. 실 명질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수확하기 때문에 내년 2월에 맛을 볼 수 있다.

고흥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업 기술교육 강화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며 "기후변화에 따른 농가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고흥 부지화를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육성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승호 전남동부취재본부장

구례군, 6차 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



구례군은 지난 18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한 '2017년 전국 6차 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6차 산업 성공사례의 발굴 및 홍보, 지역 간 벤치마킹 기회 제공과 6차 산업을 확산 유도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대회는 각 시·도 자체심사를 거쳐 추천한 우수사례에 대하여 1, 2차 중앙심사 후 10건의 우수사례를 본선에 진출시켜 발표 심사

등을 통해 최종 우수 사례를 선정하였다.

발표심사에는 전문가 심사단 8명과 패널 국민 심사단 50명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했으며, 공개오디션 방식의 발표심사로 패널 평가 점수는 발표 직후 화면을 통해 공개되어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군은 인증사업자 부문 지역 단위 분야로, 6차산업으로 삶과 지역을 행복하게 하는 힐리언스(Healience) 구례! 리는 주제로 발표하였으며, 구례군과 농업회사법인 콤베이커리(주)가 지역지원인 우리밀을 활용하여 상생발전과 구례자연드림파크를 통한 6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구례자연드림파크는 511명의 일

리리 고용창출은 물론 2016년 741억 원 매출 달성, 연간 518만 명 이상의 유료관광객이 방문하는 등 뛰어난 성과를 나타내며 구례의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한편, 농가경영체 부문에서는 (주)구례삼촌(대표 이명엽, 류재관, 최규태)이 우수상을 받았다. (주)구례삼촌은 2년여 동안 썬부쟁이를 활용한 시험연구를 통해 4건의 특허를 출원하고, 우리밀과 쌀을 활용하여 썬부쟁이 머핀·쿠키, 비빔밥 등의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여 6차 산업의 성공 모델로 성장하고 있으며, 현재 학교 급식, 고속도로 휴게소, 풀무원, 삼립식품 등 국내 23개소에 썬부쟁이 관련 제품을 납품하고 있으며, 일본,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에도 수출을 추진하고 있다.

김승호 전남동부취재본부장

"장성 황룡강 '10억 송이 노란꽃'과 함께 걸어요"

노란꽃잔치 행사장서 '몸튼튼 마음튼튼 건강걷기' 운영



"10억송이 노란꽃과 함께 걸으니 걸음이 즐겁다!"

장성군보건소가 20일 '장성 황룡강변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몸튼튼 마음튼튼 건강걷기' 프로그램을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다.

강변을 따라 황화 코스모스와 백일홍 등 화려한 가을꽃이 만개한 황룡강변은 전국에서 가장 긴 꽃길로 장성담부터 약 13.56km에 걸쳐 꽃길이 조성되어 있어 최고의 명품 산책로로 손꼽히고 있다.

보건소는 격한 운동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무리없이 걸을 수 있는 걷기 운동 프로그램을 매년 봄과 가을에 운영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걷기운동은 어르신들 역시 무릎과 허리에 부담을 주지 않고, 부상의 위험이 적은 반면 유산소 진전 운동 효과를 주기 때문에 지역 어르신들에게 적극 권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걷기대회에 참여한 어르신은 꽃이 펼쳐진 시원한 강변길을 따라 걸으며 평소보다 많은 운동량을 소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성군 보건소장은 "안전사고 없이 걷기 프로그램을 마무리 해 주민 어르신들께 감사하다"며 "올바른 자세로 걷는 운동방법을 더욱 알리고 주민 스스로 질병을 예방하고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보건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장성=반정모 기자

당신이 있어 참 다행입니다!

가족처럼, 친구처럼 오래오래~
우리 걸엔 언제나
우체국예금, 우체국보험이 있습니다.
쓸때마다 즐거운 우체국 체크카드,
든든하게 힘이되는 우체국보험,
행복한 꿈을 주는 우체국예금까지
이제, 우체국에서 만나세요~

언제나 내곁에 ~